

○ 구조개혁의 금기 분야 타파 (전력·농업·의료 등 암반규제개혁, 국가전략특구)

○ 기존의 3개 화살로 엔고, 법인세, TPP 타결 지연 등 6중고 해소 방향으로

민간투자를 창출하는
환경은 정리되고 있음

- 새로운 과제 : ①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·확대
② 인구감소 사회,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
③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탱하는 인재강화

1. 600조 엔 달성을 위한 「민관전략 프로젝트10」 (가칭)

1 - 1 :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

- ① 제4차 산업혁명 (Society5.0) (IoT·빅데이터·AI·로봇)【부가가치창출 : 30조엔(2020)】
- 자율주행(2020년 고속도로 자동주행), 즉시 오더메이트 생산, 스마트 공장, FinTech, 드론3년 이내 드론택배 실현)
- 기업·조직의 틀을 초월한 데이터 활용 플랫폼 창출, 셰어링 이코노미, 사이버 시큐리티
- 중견중소기업의 도입지원(소형 범용로봇의 도입코스트 20%감소·중소기업 1만사를 중점적으로 지원)등
- ②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【시장규모 : 16조엔(2011) ⇒ 26조엔(2020)】
- 건강·예방을 위한 보험 외 서비스 촉진 (4조 엔 시장 창출)
- IoT 등의 활용에 의한 의료진단·개별화 의료·개별화 건강서비스(보험료 청구서·건강·건강데이터를 집약·분석·활용)
- 로봇이나 센서를 활용한 간병 부담 삭감 등
- ③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과 투자 확대
【에너지 관련 투자 : 18조엔(2014fy) ⇒ 28조엔(2030fy)】
- 에너지절약(산업 톨러너 제도를 3년간 전 산업의 70%로 확대, 중소기업의 지원), 재생에너지(FIT법 개정에 의한 국민부담 억제와 최대도입의 양립), 자원안전보장 강화
- 절전량 거래시장의 창설(2017년), 연료전지자동차의 본격적 보급 등 수소사회의 실현(2030년에 관련 투자 1조엔) 등
- ④ 스포츠 성장산업화【시장규모 : 5.5조엔(2015) ⇒ 15조엔(2025)】
- 스포츠시설의 다기능화, 스포츠와 IT·건강·관광·패션 등과의 융합·확대 등
- ⑤ 중고주택 유통·리폼시장 활성화【시장규모 : 11조엔(2013) ⇒ 20조엔(2025)】
-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유통·금융 등의 시스템 구축, 인스펙션·하자보험 보급 등

1 - 2 : 로컬아베노믹스 심화

-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【부가가치 : 343조엔(2014) ⇒ 410조엔(2020)】
- 생산성 증가율을 2% 배증. 트랙·여관·슈퍼 등 7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틀, 고정자산세 감소, 지역금융지원 등
- ⑦ 농업개혁·수출 촉진【6차 산업시장 : 4.7조엔(2013fy) ⇒ 10조엔(2020fy)】
- 농지집약, 생산자재의 코스트 감소,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혁
- 스마트농업(2020년 원격감시·무인자동주행), 산업계와 농업계 연계체제 구축 등
- ⑧ 관광입국【외국인여행소비액 : 3.5조엔(2015) ⇒ 8조엔(2020), 15조엔(2030)】
※방일외국인과 일본인의 여행소비액 합계 약25조엔(2015)⇒29조엔(2020), 37조엔(2030)
- 지역관광경영 추진, 관광경영인재 육성, 광역관광 주유경로를 세계수준으로 개선, 국립공원 브랜드화, 문화재 활용 촉진, 휴가개혁 등
- ⑨ 2020년 올림픽·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위한 가시화 프로젝트
- PPP/PFI 등에 의한 공적 서비스·자산의 민간개방 확대
【10년간(2013~2022)에 PPP/PFI 사업규모를 12조 엔으로 확대(재검토 중)】
- 「개혁2020」프로젝트(자율주행, 분산형 에너지, 첨단 로봇 등) 등

1 - 3 : 국내 소비마인드 환기

- ⑩ 국민 연계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책 등

2. 생산성혁명을 실현하는 규제·제도 개혁

- 새로운 규제·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
- 산업혁신의 장래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중기목표에서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로드맵 방식의 도입
- 사업자 시각에서 규제·행정절차코스트 삭감(규제개혁, 행정절차 간소화, IT화) 등
- 미래투자를 위한 제도 개혁
-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강화(이사회 실효성 향상, 정보개시 등을 통한 건설적 대화의 촉진), 무형자산·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등

3. 이노베이션 창출·도전정신 넘치는 인재의 창출

- 이노베이션, 벤처 창출력 강화
- 기업에서 대학·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 3배 증가(2025년)
- 국내외 톱 인재를 모인 세계적 연구거점 5곳 창출
- 인공지능연구개발의 사령탑 설치(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)
- 민간주도의 「지역과 세계의 가교 플랫폼」 정비, 정부기관 합동으로 벤처 지원 컨소시엄 설치(정책의 공동기획, 지원 중점화) 등
- 다면적 접근에 의한 인재 육성·확보
- 초·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(2020년~)·IT활용에 의한 숙련도별 학습, 고등교육에서 수리·정보교육 강화, 톱 레벨 정보인재 육성
- 「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(가칭)」의 설치
- 초고속 「일본판 고도외국인 그린카드」(고도인재의 영주권부여 신속화) 등
- 성장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, 여성의 활약 등 다양한 인력의 참획
- 장시간노동 시정을 위한 노력 강화
- 여성의 활약 촉진(대기아동 해소, 다이버시티경영 촉진), 고령자의 활약 촉진 등

4. 해외 성장시장 흡수

- TPP를 계기로 중견·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
【13.8조엔 (2013fy) ⇒ 25.2조엔 (2020fy)】
-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【약16조엔 (2013) ⇒ 약30조엔 (2020)】
- 대내직접투자 유치 강화
- 경제연계협정, 투자협정 체결 추진